

● 특집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 실태와 그 원인

경기는 확장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부도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의 어음 부도율은 사상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중소기업 부도 추이의 특이한 점은 가계수표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부도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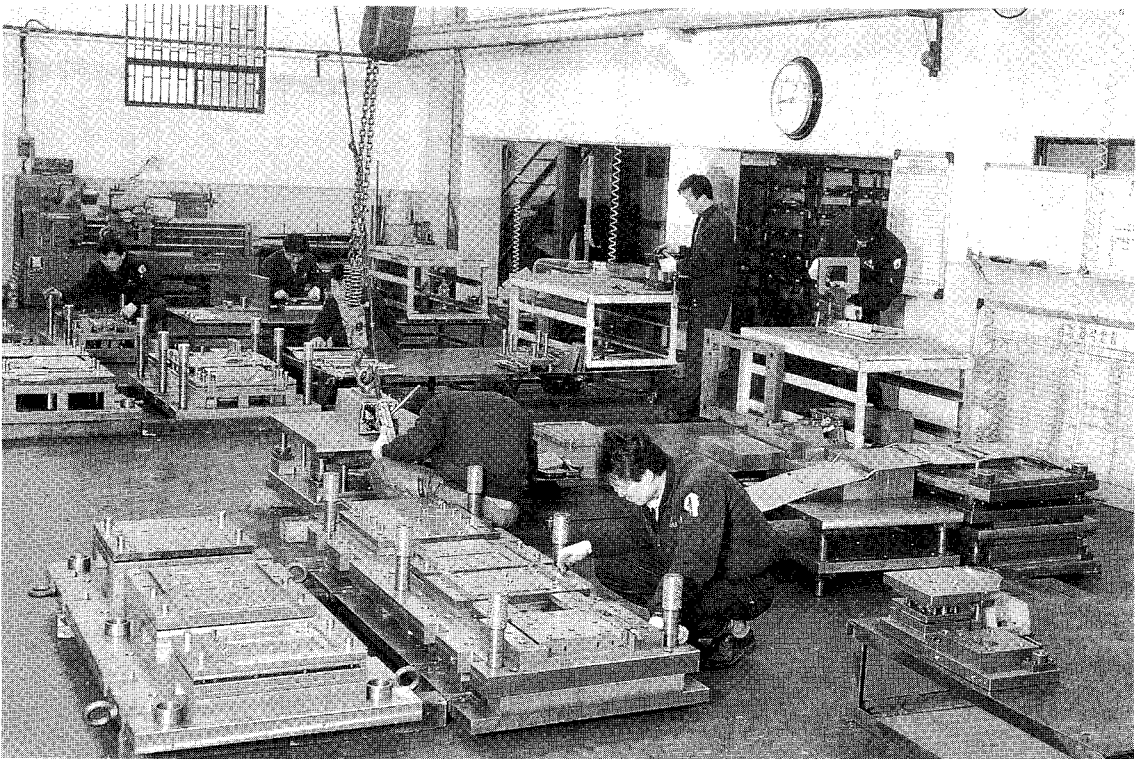
■ 글/이 태 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실

경기가 본격적인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부도는 여전히 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상반기 중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난데 힘입어 국민총생산(GNP)이 작년 상반기 대비 8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1년 상반기(100%)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중 부도를 낸 업체는 모두 4,943개 업체로 국내경기가 매우 침체되었던 작년 상반기의 4,375개에 비해 무려 568개가 늘어났으며, 지난 7월에는 922개 업체로 전년동기의 721개 업체 대비 27.9% 증가한 201개 업체가 늘어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국 어음 부도율도 지난 1월의 0.13%에서 4월에는 0.15%, 5월 0.17%, 8월 0.18%



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8월의 전국 어음 부도율은 한국은행이 어음 부도율을 집계한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낸 수치이다.

한편, 부도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수부문의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이 전체 부도업체의 약 60%를 점하고 있다.

가계수표 부도 급증이 어음 부도율 상승 주도

최근의 어음 부도율 추이와 관련하여 과거와 달리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가계수표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분석한 최근 어음 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가계수표 부도율이 지난해 2/4분기에는 0.94%에 불과했으나 금년 2/4분기에는 2.46%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부도금액에서 차지하는 가계수표 부도금액 비중이 같은 기간 중 3.3%에서 17.8%로 5.4배 높아져 어음 부도율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가계수표 부도 비중이 18.3%를 기록하여 20% 선에 근접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계수표 부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지급결제수단 확충을 위해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가 크게 확대(자영업자의 경우 과거 200만원대서 →500만원으로)되면서 일부 영세기업들의 어음결제 방식이 어음수수에서 가계수표 교부로 바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력이 약한 소규모 자영업자가

최근의 부도 관련 지표 추이(전국)

단위 : %, 개

	1993				1994							
	1/4	2/4	3/4	4/4	1/4	2/4	4	5	6	7	8	
어음부도율	0.12	0.11	0.11	0.16	0.14	0.16	0.15	0.17	0.17	0.16	0.18	
부도업체수	2,327	2,048	2,307	2,820	2,357	2,586	851	848	887	922	-	
수출기업	25	12	22	34	23	9	4	5	0	1	-	
내수기업	2,302	2,036	2,285	2,786	2,329	2,577	847	843	887	921	-	
대기업	1	0	1	4	3	2	1	0	1	0	-	
법인중소기업	773	711	844	1,068	903	996	340	315	341	385	-	
개인기업	1,533	1,337	1,462	1,748	1,451	1,588	510	533	545	537	-	

자료 : 한국은행

신설기업 및 부도 제조업체 추이

단위 : %, 개

	93.1/4	2/4	3/4	4/4	94.1/4	2/4	7월
부도업체수(A)	2,327	2,048	2,307	2,820	2,357	2,586	922
제조업체(B)	699	586	709	856	675	750	274
B/A	30.0	28.6	30.7	30.4	28.6	29.0	29.7
신설법인수(C) ¹⁾	2,852	3,062	2,871	3,153	3,589	3,929	1,428
C/A	1.23	1.50	1.24	1.12	1.52	1.52	1.55

자료 : 한국은행

주 : 1) 7개 주요 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 기준

가계수표를 남발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구조 조정도 주요 요인

또한, 가계수표가 종전에는 어음·증서 등으로 거래되던 사채의 거래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가계수표 부도에 일부 사채거래 부도까지 포괄됨으로써 가계수표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어음 부도율 증가세가 지속되고 부도업체가 절대수치상으로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함께 구조적 요인

에 의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금년 1/4분기 13.2%, 2/4분기 13.1%의 고도성장을 했으나 경공업의 경우 12%, 2.9%의 낮은 성장에 그쳤다.

특히 신발의 경우 1/4분기 -25.6%, 2/4분기 -24.4%의 감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섬유·의복도 1/4분기 -2.7% 성장에 이어 2/4분기에는 0.1% 성장에 그치고 있다.

즉 우리 경제가 경기확장 국면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엔고등 외생요인에 의해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전자·자동차·기계·화학 등 중화

학공업과 신발·섬유 등 경공업간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기확장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업구조 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강하다.

즉 경공업 분야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는 성장둔화산업에서의 한계기업 부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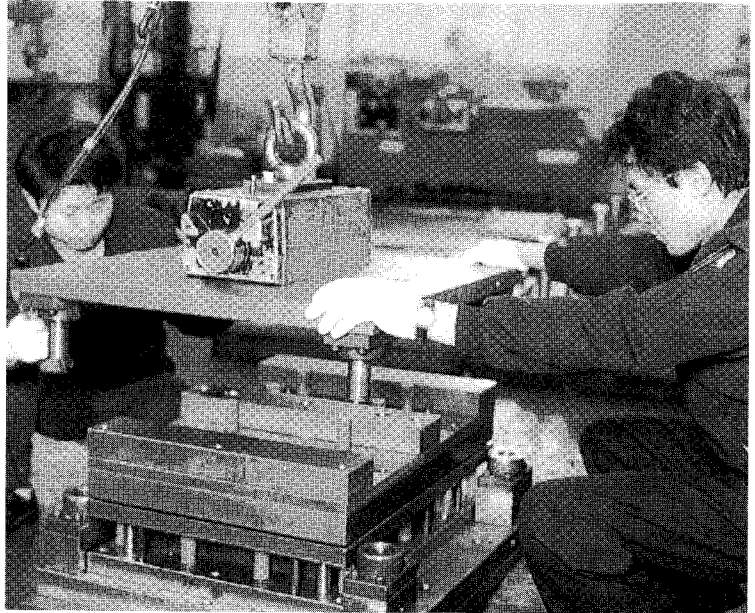
한편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부도업체가 지난해보다 증가하고 있으나 신설업체는 더 빠른 속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하반기의 전국 부도업체 수 대비 7개 주요 도시의 신설법인 수는 12개로서 신설법인 수가 약 20% 더 많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5개로서 부도업체 수보다 신설법인 수가 약 5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설법인 수를 전국 기준으로 집계하면 더욱 높을 것임).

이는 한계기업의 퇴출과 경기회복에 따른 신규기업의 창업이 병행됨으로써 산업구조 조정이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겠다.

영세 중소기업 자금난이 큰 문제

경기가 호황인데도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앞의



경기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가계수표 부도의 급증, 산업구조 조정, 그리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등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요인 이 외에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금융 자율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담보 능력이 취약한 영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신용보증 지원도 지난 2~3년간의 높은 대위변제율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구

체안이 나오지 않는 한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은행 창구에서 담보능력 부족으로 소외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 예를 들면 진성어음에 대한 신용할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 확대와 기술과 사업성을 중심으로한 신용평가 체계의 확립을 통한 제도금융권의 신용대출 확대방안 등이 긴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